

中世國語의 擬聲擬態語

南 豐 鉉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1. 서 론

國語는 擬聲擬態語가 특별히 발달한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성 의태어가 中世國語에서 사용된 실태와 그 변천에 대하여 고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擬聲擬態語는 onomatopoeia를 번역한 용어이다. onomatopoeia는 음성이 사물을 모방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擬聲語 또는 擬音語라고도 한다. 擬聲語와 擬態語는 이 擬聲擬態語에 속하는 下位概念語이니 ‘뽕뽕’, ‘딸그락딸그락’과 같이 사물의 소리를 모방한 단어를 擬聲語, ‘모락모락’ ‘새콤새콤’ ‘퀴퀴’ ‘매끈매끈’과 같이 사물의 상태나 모양을 모방한 단어를 擬態語라고 한다. 擬態語는 인간의 五感 가운데 청각을 제외한 시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모방한 단어들을 모두 가리킨다. 擬聲擬態語 가운데는 이밖에도 인간의 심리 내용을 모방한 擬情語라는 범주가 있다. ‘답답하다’ ‘싱싱생생하다’ 등이 그것으로 이들을 擬態語로 넣을 수는 없다.

언어의 음성이 사물을 모방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음성이 표현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현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단어의 범주뿐만 아니라 文體的인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니 音色에 의한 어감의 표현이나 詩의 韻律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擬聲擬態語를 포함하여 음성이 표현력을 발휘하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 音聲象徵(sound symbolism)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象徵語(symbolic word)라고도 한다. 象徵語는 擬聲擬態語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보다 포괄성이 있다.

音聲象徵을 意味論에서는 音韻論的 有緣性(phonological motivation)이라고 한다.

언어는 慣習的, 또는 恣意的인 것이어서 형식인 音相과 내용인 뜻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언어 가운데는 언어 형식이 뜻을 자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복합어나 파생어는 그 구성소들의 뜻이 어느 정도는 그 뜻을 설명해 주므로 이를 形態論的 有緣性이라 하는데 상징어는 語形을 이루는 음상이 語意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음운론적 유연성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 음운론적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본질은 관습적인 것이어서 평범한 문장이나 대화에서는 음상이 그 표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관습적인 단어와 다름없이 사용된다. 상징어는 그 단어가 그 표현력에 알맞은 문맥에 쓰였을 때 표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에 작품에 상징어가 자주 쓰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징어는 사람과 시간에 따라서도 달리 느끼게 된다. 동일한 象徵語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징적 표현성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은 전연 느끼지 못하는 수가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순간적인 기분 따라 달리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또 상징어는 언어의 관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중세 국어의 상징어는 문헌에 나타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중세 국어 문헌은 諺解文이 주류를 이루고 문예적인 창작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살아 있는 상징어의 모습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杜詩 諺解는 諺解이긴 하여도 詩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적 많은 상징어를 보여 주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또 당시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완벽하게 기술한 연구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필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오던 것을 얼마간 가미하여 기술하여 보기로 한다.

2. 高麗時代의 擬聲擬態語

前期中世國語 時代인 高麗時代의 국어 자료는 극히 빈약하여 擬聲擬態語를 체계적으로 고찰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다만 후대의 의성 의태어와 대비해 보면 이 시대의 것들이 구조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의성 의태어들은 의외의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 高麗史世家 4, 顯宗 卽位年條에 보면 顯宗이 千秋太后의 땀박을 받던 潛邸 시절, 꿈에 닭의 울음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術士에게 물으니 우리말로 풀어 해석하기를 닭의 울음 소리는 '高貴位'이고 다듬이질 소리는 '御近當'이니 이는 곧 즉위할 조짐이라고 하였다. 이는 닭의 울음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한자에 대응시켜 그

뜻을 풀이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성어를 확인할 수 있다. 高貴位는 모음 조화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한자어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어형을 약간 변경시킨 것으로 보인다. ‘고괴와’나 ‘구귀위’라는 어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음절의 첩용 구조를 보여 주는 의성어로 현대어의 ‘꼬끼요’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 의성어는 고려 시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다가 현대어에 와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어서 특히 귀중한 느낌이 든다. 御近當은 당시에 ‘어근당어근당’이라는 첩어가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 역시 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다듬이질 소리로는 경쾌하고 율동성이 있는 의성어이다. 이 전설이 11세기초인 顯宗 시대에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후대에 생긴 설화라 하더라도 고려 시대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니 매우 이른 시기에 후대의 語形과 類似한 構造를 가진 의성어를 확인한 것은 의성 외태어 연구를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 한편 王位는 天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란 점에서 보면 이 설화 속에는 자연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는 하늘의 意志와 통할 수 있다는 言語神聖觀이 나타나 있고 또 신라 시대부터 닭을 신성하게 여겨 오던 관념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歌謠에 나타나는 의성어들은 고려 시대인이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모방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어괴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井邑詞〉

아으, 動動다리 〈動動〉

아으, 어와 〈處容歌〉

아으 〈鄭瓜亭〉

위 〈翰林別曲〉

아즐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西京別曲〉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靑山別曲〉

다로러거더러, 더러동성 다리러더러 다리로더러 다로러거더러 다로러,

위 위 다로러거더러 다로러 〈雙花店〉

딩아돌하 〈鄭石歌〉

위 증즐가 〈가시리〉

위 덩더동성 〈思母曲〉

이들은 노래의 가락을 맞추기 위하여 들어간 擬聲語들이니 ‘어괴야’, ‘아으’, ‘어와’, ‘위’ 등은 흥에 겹거나 슬픔에 겨워 발하는 嘆聲을 모방한 것이고 그밖의 의성어는 북과 같은 打樂器나 가야금과 같은 絃樂器의 소리를 모방한 것이다. 이 의성어는 口語에서 사용되지 않고 노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살아 있는 의성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악기의 의성어는 모음 충돌이나 자음 충돌 현상이 없이 부드럽고 흥겹게 흘러가는 리듬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이 시대의 의성 의태어의 구조를 보여 준다. 이밖에 發聲의 주체를 나타내는 ‘접동새(鄭瓜亭)’가 있다. 후대에는 ‘숫적다새’로도 불린 ‘소적새’의 울음 소리를 이 시대에는 ‘접동접동’으로 들었음을 말해 준다.

고려 시대의 擬態語는 均如의 향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꼽을 수 있다. 恒順衆生歌에

法界居得丘物叱丘物叱 爲乙吾置同生同死

의 ‘丘物叱丘物叱/구물구물’이 15세기의 ‘구물구물’에 해당하고 현대 국어의 ‘구물구물’에 이어지는 것이다. 10세기의 작품에서 象徵的 語根을 채용한 어형을 발견하게 되어 현대 국어의 상징어와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어이다. 均如의 향가는 문예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상징어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밖에 의성 의태어라고는 할 수 없어도 ‘塵塵’ ‘刹刹’, ‘佛佛’, ‘念念’과 같은 疊語가 나온다. 이들은 비록 한문의 표현법에서 온 한자어이지만 같은 음절을 중복시킴으로써 數概念의 增幅을 가져오는 한편 음의 諧調를 이루어 詩的인 표현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다.

13세기 국어의 자료인 鄉藥救急方에는 閻茹의 鄉名으로 ‘烏得夫得, 五得浮得’이 있다. 이는 ‘오독부득’이나 ‘우득부득’을 표기한 것인데 그 채용 구조로 보아 상징어일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는 ‘오독또기’로 바뀌어 채용 구조에 변화가 생겼으나 역시 상징적인 구조는 유지되어 있다. 현대 국어에도 ‘오독도기’로 남아 있는 단어이다.

이상이 고려 시대의 의성 의태어로 필자가 확인한 것이다. 양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지만 상징어의 구조가 현대 국어에 계승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점에서 귀중하다 하겠다.

3. 後期中世國語의 擬聲擬態語

후기 중세 국어 시대인 15, 6세기의 擬聲擬態語 資料는 한글이 창제된 후이므로 高麗時代에 비하면 풍부한 편이다. 우선 자료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1) 擬聲語

의성어는 사물의 소리를 말소리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어형과 뜻과의 유사성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우선 인간이 감동이나 비탄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하는 소리를

흉내낸 말을 살피기로 하자.

- (1) 익 ; 이는 상대를 論議하기 위하여 먼저 가벼운 질책을 할 때 내는 소리이다. 한문의 嗚呼나 嗚呼의 번역에 쓰였다. ‘이 男子아 네 상네 이를 짓고 노외 던디 가디 말라(法 2, 211).’
- (2) 앵 ; 윗 사람에게 대하여 고맙고도 감동스러워 내는 소리이다. ‘앵 울흐시이다 世尊하(석보 13, 47).’
- (3) 핵 ; 蒙山法語(31)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喝은 핵 흘 씨니 비홍 사르미 헤야르미 다 떠러디그 우리틸 씨라.’ 제자들이 정신이 들도록 스승이 외치는 소리이다.
- (4) 화 ; 역시 蒙山法語(18)에 ‘因地는 문 어땃던 거슬 어더서 화 흥논 소리라’라 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감동하여 내는 소리이다.

이들은 현대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된 데다가 그 예가 적어 그 성격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佛經翻譯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佛家에서 慣用하는 말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단어들이 모두 유성음으로 끝나는데 (3)의 ‘핵’이 유독 무성음인 ‘ㄱ’으로 끝나는 것이 주목된다. 강렬하고 격한 내용을 담은 표현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동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 (5) ㅼ ; 이는 漢詩의 嚇자를 번역한 의성어로 사다새(洵河)라는 물새가 다른 새를 험박할 때 내는 소리라 한다. 莊子에 있는 故事를 응용한 杜甫의 시구에 사용되었다. ‘洵河 ㅼ 노는 저비를 ㅼ 혼디(杜 25, 54)’¹⁾.

다음은 의성어가 發聲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 | | |
|---------------------|---------------------|
| (6) 곳고리/鶯(杜 21, 7) | (7) 뿡/雉(龍歌 88) |
| (8) 버국새/布穀(杜 4, 19) | (9) 머구리/蛙(杜 24, 41) |
| (10) 미야미/蟬(杜 9, 34) | (11) 꺾돌와미(杜 7, 36) |

이 동물과 곤충들의 울음 소리는 모두 疊語로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곳곳곳곳’, ‘뿡뿡’, ‘버국버국’, ‘머굴머굴’, ‘미얌미얌’, ‘꺾돌꺾돌’과 같은 첩어가 이 당시에도 쓰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1) ‘ㅼ’은 이 한 예뿐이고 社詩諺解 影印本의 상태가 좋지 않아 ‘ㅼ’로 읽기가 쉬우나 중간 두 시 언해에는 ‘ㅼ’으로 되어 있다.

- (12) 수스다, 수스워리다, 수수워리다, 수수어리다; 이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쓰이는 것으로 多衆이 잡다하게 내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현대어의 '수선을 떨다'에 이 단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은 다음의 두 단어와 접어가 발견될 뿐이다.
- (13) 워즈런; '어수선하게 소리나다'의 뜻이다. '차반 밍굴 소리 워즈런하거늘(석상 9, 37)'.
- (14) 푹 ~ 푹푹; '푹'은 현대 국어의 '툭'과 같은 것으로 폭발성을 흉내낸 말이다. '더오른 밤 구불 제 더본 氣韻이 소배 드러 ㄹ 심통애 들면 푹 떠딜 씨니 이논 見性홍 젓 이롤 形容하니라(蒙山 44)'.
푹푹은 접어로 현대 국어의 '툭툭'과 같은 것이다. 현재 15세기의 의성어로는 유일하게 확인된 접어이어서 매우 귀증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셔와 긴괘 푹뿌기 소리 나 震動하야 짜야디여 / 椽柱 爆響震裂(法 2, 124)'.

이상 극히 적은 수의 의성어가 확인될 뿐이어서 이 시기의 의성어를 체계적으로 고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구조상으로는 현대 국어와 거의 일치한다.

2) 擬態語

의성어에 비하면 의태어는 많은 예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의미가 현대어와 차이가 있는데다가 용례가 부족하여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五感에서 볼 때 의태어는 청각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 감지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시대의 의태어를 각 感覺器官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 視覺에 의한 것

擬聲擬態語 가운데서는 시각에 의한 의태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이 시각에 의하여 가장 많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태를 모방한 의태어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 (15) 구즉 ~ 구즉구즉; 이는 '우뚱, 우뚱우뚱'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다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힘찬 외모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구즉구즉하야 피쌌 내는 물삿기 큰도다(杜 22, 45)'.

- (16) 다복다복; 현대 국어에도 그대로 쓰이는 말이다. ‘다복다복하야 프른 지치 빗나고(杜 7, 37)’. 여기서는 어린 벼포기가 물 위에 솟아 있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 (17) 쏙쏘시; ‘뽕죽뽕죽’에 가까운 뜻이다. ‘쏙쏘시 銀漢에 넷도다(杜 7, 37)’에 쓰인 것으로 벼의 모가 물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뽕죽뽕죽하다는 뜻이다. 현대 국어에는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이다.
- (18) 머훗머훗; 현대어에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다. ‘머훗머훗시 무더미 서르 當호얏도다(杜 25, 7)’. 무덤이 겹겹이 잇달아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 (19) 물궤물궤; ‘말궤말궤’에 이어지는 의태어다. 동사 ‘물-’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想 일 찌긔 낫나치 보물 ㄹ장 물궤물궤시 ㅎ야(월석 8, 8)’. 현대어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 (20) ㄹ궤; ‘깨끗’에 이어지는 의태어이다. 그러나 그 쓰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淸風은 ㄹ궤고 ㄹ궤호 ㄹ리미라(월석 8, 8)’.
- (21) 숨숨; 현대 국어에 ‘송송’에 이어지는 것이나 의미상 차이가 있다. 털이 가지런함을 나타낸다. ‘가히 터리 숨소미 이시면(敎簡 1, 8)’.
- (22) 식식 ~ 식식; 어형상으로는 ‘씩씩하다’에 이어지지만 뜻은 ‘엄숙하다’ 또는 ‘새롭다’이어서 차이가 있다. ‘서리 후에 식식호도다/新(眞供)’. ‘嚴은 식식호 썬라(월석 10, 70)’.
- (23) 직직 ~ 칙칙 ~ 칙칙; 이들은 자음과 모음의 대립으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어형상으로는 현대 국어의 ‘칙칙하다’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칙칙하다’는 색깔이 짙은 것을 뜻하는데 15세기의 ‘직직’ 등은 사물이 조밀한 것을 뜻하여 ‘뽕뽕하다’에 가깝다. ‘직직호 수프리/稠林(法 1, 210)’. ‘니피 칙칙호니/葉密(杜 22, 4)’. ‘니 - - - 칙칙호샤/齒 - - - 密(法 7, 148)’.
- (24) 특특; 어형상으로는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옷감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을 ‘특특하다’고 하지만 15세기에는 구름이 짙게 낀 것을 나타낸다. ‘구루미 특특디 아니호면/雲不密則(법 3, 10)’.
- (25) 나별바별; ‘나뻗나뻗하다’에 이어지는 단어이다. 형용사 ‘넙- ~ 납- (廣)’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나뻗나뻗디 사호라/切作片子(敎簡 1, 8)’.

의상은 象徴의 語根이 적용되는 단어를 든 것이다. 다음은 적용되지 않은 의태어들이다.

- (26) 흰 ; 현대 국어에 그대로 계승된다. '城밖 흰호 싸해 가(석상 6, 27)'.
- (27) 흰출 ; 어형상으로는 '흰칠하다'에 계승되는 것이지만 수식하는 대상에서 현대어와 차이가 있다. '흰출호 風烟 밖기 / 浩蕩風烟外(杜 21, 27)'.
- (28) 아스라- ; '아스라하다'에 이어지는 단어다. '아스란 南國에 / 杳杳南國(杜 25, 28)'.
- (29) 어득 ; '어득하다'에 이어지는 단어이다. '히 어득호야(杜 7, 10)'.
- (30) 호슴츠러하- ; '호슴츠러하다'에 이어지는 의태어이다. '河漢 다리 호슴츠러호도다(杜 24, 57)'.
- (31) 도렬 ; 등근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어형상으로는 '도렸하다'에 이어지지만 의미상으로는 '동그랗다'에 더 가깝다(杜 7, 31 참조).
- (32) 두두룩 ;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두두룩호 靑州엿 피오 / 坡陀靑州血, 坡陀호 高貌 1 라(杜 24, 31)'. 현대어보다는 좀더 높은 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33) 쏘론 ; '뽕죽하다'와 같은 뜻이다. '蜀호 피히 쏘론호도다 / 蜀山尖(杜 23, 42)'.
- (34) 구븐 ; '구븐하다'에 이어지는 의태어다. 형용사 어간 '굽-'에 '-은'이 접미된 것이다. 상징적 표현력이 있다. '모기 구븐호고(석상 13, 53)'.
- (35) 우묵 ; 현대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빛보기 들거우시고 우묵디 아니호 시고(法 2, 15)'.

다음은 동작의 모습을 모방한 의태어를 검토하자.

- (36) 구물~구물구물~구물우물 ; '구물구물'에 그대로 이어진다. 均如의 향가에도 나타난 의태어다. '구물우물'은 15세기의 음운 법칙에 의하여 'ㄱ'음이 탈락한 것이지만 형태의 변화가 어감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 (37) 설설 ; 현대 국어의 '설설'에 이어지는 의태어인데 모방의 대상은 다르다. '活潑潑은 설설 흐르는 맑겨레 비친 돌 비출 날은 마리니(蒙法 43)'.

- (38) 섬섬; ‘활활’에 가까운 뜻이다. ‘陽焰은 陽氣 섬섬 노는 거시니 거죽 거시라(金三 5, 27)’. 이 단어들은 어두에 ‘△’음이 쓰인 것이 예외적이다.
- (39) 어른어른; 어형상으로는 현대어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다. 나뭇가지나 세월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어른어른흔는 버들가지는 프르고(杜 21, 15)’. ‘時節이 어른어른 가(杜 7, 36)’.
 (40) 너운너운; ‘너울너울’에 이어지지만 뜻은 ‘훨훨’과 같이 가볍게 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너운어운 오논 구름스 氣運(杜 9, 37)’. ‘너운너운히 새 든니는 길호로(杜 19, 30)’.
 (41) 이룩이룩; ‘반짝반짝’의 뜻이다. 어원적으로 ‘이글이글’에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늘난 갈히 촌 서릿 비치 이룩이룩하니 / 露刃劍寒霜光焰焰(蒙法 55)’.
 (42) 조늑조늑; 현대어에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다. ‘천천히’의 뜻이다.
 (43) 줌줌; ‘잠잠하다’에 이어지는 것이나 주로 말이 없음을 나타낸다. ‘世穽이 줌줌하샤 말이디 아니하시니라(석상 13, 46)’.
 (44) 잔죽고; ‘잠잠코’의 뜻이다. ‘줌줌’과 어원이 같을 것인데 여러 단계를 거친듯 어형상의 차이가 크다. ‘須達이 잔죽고 스랑하더니(석상 6, 25)’.
 (45) 스프르; ‘슬- (消)’에서 나온 것인데 의미는 차이가 있다. ‘상쾌하다’의 뜻이다. ‘스프르히 베훈 부눗다(24, 63)’.
 (46)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의 뜻이다. ‘회’는 ‘휘’와 대립된다.
 (47) 힐후다; ‘부드럽지 않고 거슬리다’의 뜻이다. ‘難은 힐후씨라(法 1, 32)’.
 (48) 곱죽; ‘감작감작’에 이어진다. 동사 ‘곱-’에서 파생된 것이다.
 (49) 움죽; ‘움지기다’에 이어진다. ‘몸과 마음과 움죽디 아니하야 거시거늘(석상 13, 12)’.
 (50) 브즈런; ‘부지런하다’에 이어진다. ‘브즈러늘 뵈야시늘(法 6, 125)’.
 나) 기타의 感覺器官에 의한 擬態語
 視覺 이외의 감각 기관으로 느낀 것을 표현하는 의태어는 본래 그 수가 적은 것이지만 문헌상으로는 더 적은 수가 나타난다.

- (51) 촉촉 ~ 촉촉; 현대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觸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支體 보드라오며 촉촉홀 시라 / 支體柔潤(원각 3-2, 27)'. '濕生은 촉촉홀 더서 날 씨오(석상 19, 2)'.
- (52) 땃땃 ~ 땃땃; '땃땃하다'에 이어진다. '땃그럽-'과 같은 어원으로 觸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머리터리 땃나시고 땃땃히시고(法 2, 17)'. '뉘 날오디 땃땃하야 수이 비 브르누다 호노뇨(杜 7, 38)'.
- (53) 흠흠; '함함하다'에 이어진다. '흠흠하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觸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터릿 비치 흠흠하고 조호시며(월석 2, 58)'.
- (54) 마스라기; '가시라기'에 이어진다. 어근으로 '마술-'을 추출할 수 있다. '까실까실하다', '깔깔하다'와 같은 어원이다. '마스라기 / 芒(杜 7, 18)'.
- (55) 옷긋 ~ 옷긋; '향기롭다'의 뜻이다.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다. 嗅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짚은 호갓 옷긋흔 것분 아니라 고흐로 만는 거슬 다 니르니라(석상 13, 39)'. '마는 프리 옷긋호고(重杜 12, 36)'.
- (56) 뿔- ~ 뿔-; 味覺에 의한 의태어로 '뿔다, 뿔다'에 이어진다. 'ㄷ'음과 'ㅌ'음의 대립을 보여 주는 드문 예이다. '滌은 뿔불 씨라(월석 17, 67)'. '여러 가짓 쓰며 뿔본 거시(석 19, 20)'.
- (57) 시- ~ 식-; '시다(酸)'에 이어지는 것으로 味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신 술 / 酸酒(南明上 24)'. '신 물 / 酸水(龍 5, 4)'.

3) 擬情語

五感에 의하여 느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작용으로 느낀 것을 나타내는 擬情語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의 二肢의 對立에 의하여 표현되는 擬情語가 발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밖의 의정어들만 검토하도록 한다.

- (58) 갓갓; '가까스로'에 이어진다. '쉽고 애완븐 뜯들 머거 갓가스로 사니 노니(석상 6, 5)'.
- (59) 답답;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마스미 답답하야(杜 7, 36)'.
- (60) 덜덜; '땃땃하다'에 이어진다. '덜덜하야 變티 아니쿨늘(法 1, 109)'.

- (61) 프리프리; ‘往往, 이따금’의 뜻이다. 이 단어는 비교적 자주 쓰인 말이어서 첩용이 아닌 ‘프리’라는 명사가 예측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시간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의정어로 생각된다.
- (62) 숲숲; 현대어에는 이어지지 않는 의정어이다. 어떤 일을 툭툭히 깨달은 상태를 표현한다. ‘므슴미 숲숲하야사(法 5, 158)’.
- (63) 가국; ‘급하다’의 뜻이다. ‘하다가 믈슴 뿌미 가국하면(蒙法 7)’.
- (64) 과마르-; 역시 ‘급하다’의 뜻이다. ‘柔和善順하야 과마르디 아니하며(法 5, 8)’. ‘아시 저네 과글이 비를 알하(월석 10, 24)’.
- (65) 닻기-, 답찌-; ‘마음 속이 들볶이어 답답하다’의 뜻이다. ‘더위 설위 답쳐 드로몬(法 2, 131)’. ‘窮子 | 놀라 울어 닻겨 싸해 디여(法 2, 240)’.
- (66) 뭇뭇; ‘마뜩하다’에 이어진다. ‘뭇뭇흔 머느리(석상 6, 13)’.
- (67) 뵈; ‘간절하다’의 뜻이다. ‘法 爲호미 뵈흔 디라 / 爲法之切(1, 170)’.
- (68) 고죽; ‘고작하다’에 이어진다. ‘精誠이 고죽하니(석상 9, 19)’.
- (69) 흐들; ‘술에 흠뻑 취한 상태나 마음이 흐뭇한 상태’를 나타낸다. ‘흐들 어지다’에 이어지나 차이가 있다. ‘氣運이 흐들하야(杜 22, 43)’.
- (70) 문득, 문듯; 두 단어가 모두 ‘문득’의 뜻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득 現하샤 마장 放光하시니(월석 10, 6)’. ‘문듯 아스라하도다 / 忽杳冥(杜 24, 5)’.
- (71) 이속고; ‘이속고’에 이어진다. ‘이속고 부테 드러 오나시놀(월석 10, 8)’.

이상 後期中世國語에 나타나는 의성 의태어를 열거하였다. 이밖에도 의성 의태어로 보이는 것이 더 있으나 생략하였다.

이 의성 의태어를 보면 15세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음운의 발달 법칙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이 어형과 의미가 이어져 오는 것, 어형은 이어지고 있으나 의미나 용법이 크게 바뀐 것, 의미는 이어지고 있으나 어형이 음운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보이는 것, 현대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현대에까지 이어져 내려 오는 것

곳고리	뿡	버국새	미야미	꿇돌와미
뽕 ~ ~ 뽕뽕	축축	다복다복	뭇뭇뭇	나별나별

ㅁ스라기	훤	훤출	어득	흐슴츠러하-
두두룩	구분	우묵	구믈 ~ 구믈구믈	~ 구믈우믈
잔죽고	좁죽	브즈런	축축 ~ 축축	밋밋 ~ 밋밋
흙흙	ㅁ스라기	뽏- ~ 뽏-	시- ~ 시-	갓갓
답답	던던	뭇뭇	고죽	믈득 ~ 뭇득
이속고				

나) 의미나 용법이 현저하게 바뀐 것

수스-	직직 ~ 칙칙 ~ 칙칙	ㄹㄹ	식식 ~ 식식
투투	도련	어른어른	죤죤
호들			스르르

다) 어형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

머구리(>개구리) 숨슴(>숨송) 쏘론(>쑤죽) 설설(>설설)
 너운너운(>너울너울) 이룩이룩(>이글이글) 회로리뵤롬(>회오리바람)

라)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

이	엥	헐	화	백	위즈런
구죽 ~ 구죽구죽	머훗머훗	쑤쑤시	섬섬	즈늑즈늑	
웃긱 ~ 웃긱	힐후-	므리므리	숄숄	가죽	
파ㅁ라	닭기-	뵤			

이 분류는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리하여 보면 의성 의태어 71항목 중 35항목만이 큰 변화가 없이 이어져 내려 오고 나머지 36항은 변화를 입었거나 소멸된 것이다. 이러한 숫자는 다른 일반 어사에 비하여 의성 의태어가 변화의 폭이 큰 것임을 말한다. 의성 의태어는 知的인 의미보다는 감동적 의미가 강한 것인 데 말미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의성 의태어는 음성과 의미 사이에 긴밀하고도 자연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의 결과는 오히려 의성 의태어일 수록 변화를 쉽게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감동적 의미는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고 시대에 따라서도 변동이 큰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4. 擬聲擬態語의 構造

1) 疊用

의성 의태어는 다른 단어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이 음의 諧調를 이루기 위한 疊用이다. 이에는 語根의 疊用, 音節의 疊用, 單音의 疊用이 있다.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검토하기로 하자.

(1) 語根의 疊用

이에는 의성 의태적 어근의 첩용과 일반 어사의 첩용이 있다. 먼저 일반 어사의 첩용부터 고구해 보기로 한다.

(가) 一般 語辭의 疊用

нат나치(<낮낮;箇箇)	근그티(<글글;端)	곧고대(<곧곧;處處)
겹겨비(<겹겹;重重)	갓갓(<갓갓;種種)	나날(<날날;日日)

이러한 첩용은 한자어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漸漸	永永	綿綿	種種	各各	雙雙	微微
隱隱	殷殷	茫茫	草草	藉藉	悠悠	落落

15세기 문헌에는 이밖에도 많은 한자어 疊語가 나타나서 첩용 현상은 국어보다도 한문에서 더 많이 쓰임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는 중국어의 의성 의태어도 있지만 국어에서는 漢字를 독립성이 있는 어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 어사의 첩용과 같은 것으로 다룬다.

이 일반 어사의 첩용은 '1概念 + 1概念 = 2概念'이 아니라 무한한 개념의 습이 되는 의미의 강화이다. 이 강화의 수법이 동일 어형의 중복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현상은 언어 활동의 다른 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詩에 있어서의 韻의 첩용이나 운율의 첩용이 그것으로 이는 음의 諧調로 美的 感覺을 자극하는 것이다. 일반 어사의 첩용도 이러한 음의 해조가 효과적으로 응용된 것이다.

(나) 擬聲擬態的 語根의 疊用

a) 동작의 지속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것

구름구름	설설	섬섬	어른어른	너운너운
죽죽죽죽	뚝뚝	이룩이룩	반듯반듯(灼)	

b) 狀態의 持續이나 尤甚함을 나타내는 것

구죽구죽	직직 ~ 칙칙 ~ 칙칙	특특	다복다복
축축	식식	쑥쑥	흐뭇흐뭇(濃)
나뻤나뻤	밋밋 ~ 밋밋	갓갓	답답
흙흙	뾰뾰	물궂물궂	다풀다풀
노흔노흔			아졸아졸

이러한 어근을 채용하는 의성 의태어 중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어근의 음을 다른 음으로 바꾸는 예가 있다.

구름우물(<구름구름) 번들윈들(<번들번들) 브줄우줄(<브줄브줄)

이들은 ‘ㄹ’음 뒤에서 ‘ㄱ’이나 ‘ㅂ’음이 탈락하는 음운 법칙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휴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어근의 채용에서 음이 탈락하지 않는 예도 있어 단순한 음운 법칙에 의하여 탈락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쪽 어근의 음을 다른 음으로 바꾸어서 표현적 효과를 높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類似概念을 가진 類意語를 중복하여 표현한 예가 있다. ‘날혹죽죽’이 그것으로 이는 ‘죽죽죽죽’의 앞부분을 ‘날혹-’로 교체시켜서 표현적 효과를 높인 것이다. 이 구성은 ‘날혹 x 죽죽죽죽 → 날혹죽죽’의 과정을 거친 混成에 의하여 조어된 것이다.

(2) 音의 疊用

(가) 音節의 疊用

굽굽외- ~ 굽굽위-	곳고리	도도-(陞)	두두룩
웃웃 ~ 웃웃	스르르히	후로로히-	피외-

이 가운데는 파생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도 있으나 그 표현력은 기원적인 채용과 다를 것이 없다.

(나) 單音의 疊用

(A) 母音의 疊用

a) ‘오, 우’ 음의 疊用

보도랏 / 보도록	쏘론	소흙	우목
수수위리-	부를-	부우리	

b) ‘오, 으’ 음의 疊用

보수손	보수와미-	보수차-	우문
흐숨츠러하-	그속	브스왜-	

c) ‘외’ 음의 첩용

과외하-

(B) 子音의 疊用

a) ㄱ음의 첩용 ; 가국하- 과글이 / 과골이

b) ㄷ음의 첩용 ; 다듬- 더듬- 두드리- 드디- 디들-

c) ㄹ음의 첩용 ; 회로리보롬

d) ㅂ음의 첩용 ; 비비- 범비- (麻痺)

e) ㅅ음의 첩용 ; 스식로

f) ㅈ음의 첩용 ; 잔죽고 지즈로 지즐앗-

g) ㅎ음의 첩용 ; 힐후-

음절이나 단일음의 첩용도 동일음을 반복함으로써 음의 해조에 의하여 상징적인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근의 첩용과 같이 체계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개인에 따라 표현하거나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音의 對立

현대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대립에 의한 음성 상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의 대립에 의한 음성 상징이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모음의 대립에 의한 음성 상징은 현대 국어보다 훨씬 더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다.

(1) 子音의 對立

현대 국어에 있어서는 ‘감감하다’에 대한 ‘깜깜하다’와 같이 ㅈ음과 有氣音의 대립에 의한 語感表現이나 ‘발장다’에 대한 ‘빨장다’와 같이 ㅈ음과 硬音의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이 발달되어 있어 ‘子音加勢法則’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이에 준할 만한 어감 표현법은 매우 빈약하여 ㅈ음과 有氣音의

대립에 의한 것은 '직직(密)'에 대한 '칙칙 ~ 칙칙'과 '뽀-'에 대한 '뽀-'이 있을 뿐이고 ㅍ음과 硬音에 의한 것은 한 예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스-(牽)'가 '끄스-'로 된 것을 어감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非擬聲擬態語였던 단어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 자음의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단순히 문헌의 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의 국어에서 유기음의 기능 부담량이 평음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는 사실과 경음이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語根의 끝에 無聲子音이 쓰이느냐 有聲子音이 쓰이느냐에 따라 어감 표현상 현저한 대립을 보여 주는 현상이 있다.

a) 'ㄱ' 말음

ㄱ죽	고죽	곰죽	ㄱ죽	가죽
구죽	그속	날혹죽죽	다복다복	든득
반죽	식식	아득	우묵	움죽
이속고	이룩이룩	죽죽죽죽	직직	칙칙
축축	축축-	뽀뽀	특특	헉
흐워				

b) 'ㄷ' 말음

구븐	도븐	븐-	뽀븐
----	----	----	----

c) 'ㅂ' 말음

겹겹	답답	답상-	뽀피-	즐금(드리우-)
----	----	-----	-----	----------

d) 'ㅅ' 말음

ㅅㅅ	갓갓	기웃	넌긋	드뭇
머훗머훗	밋밋	쓱쓱	식툏	아툏(답-)
웃긋	짐긋	휏(돌-)	휏(두르-)	

이상의 예들로 보면 이들 어근말의 무성음들은 '急了고, 斷絶되고, 激하고, 정지되고, 메마른' 어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구실을 한다.

e) 'ㄴ' 말음

ㄴ민	너운너운	넌긋	노흔노흔	번득
----	------	----	------	----

번들윈들	브즈런	어른어른	우션	워즈런
뽀	편(답-)	훤		
f) 'ㄹ' 말음				
곱골(외-)	과글이	구물구물	다풀다풀	반돌윈돌
서늘	설설	아줄아줄	흐들	훤훤
g) 'ㅁ' 말음				
니섬니섬	더듬-	숨숨	섬섬	좁좁
호숨(츠러)	흠흠			

이 예들로 보면 앞의 무성음으로 끝나는 말들과는 반대가 되는 어감을 느낄 수 있으니 '느리고, 지속적이고, 부드럽고, 동적이고, 윤택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의 표현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관습적인 단어에서 상징적인 단어로 파생되기도 한다.

뫓-(備) → 마죽	굽-(瞬) → 굽죽
굽-(曲) → 구븐	굽-/굽-(曲) → 굽굴위/굽굴외-
번/반- → 번득/반득	식-(酸) → 식툏
아름답- → 아룻답-	드물- → 드뭇-
기울- → 기웁-	도렵- → 도련-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도렵-'과 '도련-'은 같은 무성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도렵-'은 관습적으로 흔히 쓰이는 '-업-'이 접미된 것이고 '도련-'은 상징적 표현을 위하여 이를 '-얼-'으로 교체한 것이다.

(2) 母音의 대립

중세 국어의 모음은 7모음 체계로 이들이 모음 조화에 의하여 양모음 '으, 오, 아'와 음모음 '으, 우, 어' 그리고 중성 모음 '이'로 나뉘어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모음 조화에 의한 대립이 음성 상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모음과 음모음이 대립의 짝을 이룬다. 즉 '으'는 '으'에, '오'는 '우'에, '아'는 '어'에 대립되어 이들이 어감의 대립을 나타낸다. 우선 그 대립되는 語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으 ~ 으'의 대립

굴히- ~ 글회-(解)	꺾- ~ 꺾-(擻)	금죽- ~ 금죽-
꺾- ~ 꺾-(劃)	늙- ~ 늙-(老)	뚫- ~ 뚫-(穿)

몹- ~ 몹-(稀)	밋밋 ~ 밋밋	브스- ~ 브스-(碎)
붙- ~ 붙-(附)	붉- ~ 붉-(赤)	술- ~ 술-(消)
슬갑- ~ 슬갑-(慧)	시- ~ 시-(酸)	식식 ~ 식식
즈르- ~ 즈르-(絞)	뜰- ~ 뜰-(裂)	칙칙 ~ 칙칙
푸르- ~ 푸르-(靑)	피- ~ 피-(發)	

b) '오 ~ 우'의 대립

고비 ~ 구비	요조숨 ~ 요주숨	굽- ~ 굽-(曲)
고죽 ~ 구죽	녹- ~ 녹-(融)	노르- ~ 누르-(黃)
도련- ~ 두련-(圓)	도르- ~ 두르-	도탑- ~ 두탑-
도드록 ~ 두두록(凸)	몽기- ~ 몽기-(丸)	보드랍- 부드랍-
오목 ~ 우목	웃곳 ~ 웃곳	움죽움죽 ~ 움죽
촉촉 ~ 촉촉	환- ~ 흰-	흰도르- ~ 흰두르-
도로 ~ 두루	돌가이 ~ 들거이	

c) '아 ~ 어'의 대립

가풀 ~ 거풀	갓 ~ 것(物)	갓 ~ 것(皮)
마리 ~ 머리	가리- ~ 거리-(岐)	간- ~ 견-(收)
감- ~ 검-(黑)	갓ㄱ- ~ 것ㄱ-(折)	남- ~ 념-(越, 餘)
다듬- ~ 더듬-(探)	짜디- ~ 빠디-(裂)	막- ~ 먹-(擊)
발- ~ 벌-(排)	바히- ~ 버히-(斬)	반득 ~ 번득
반들원들 ~ 번들원들	벗- ~ 벗-(脫)	사늘 ~ 서늘
사리- ~ 서리-(蟠)	삭- ~ 석-(朽)	아득 ~ 어득
아줄 ~ 어줄(迷)	작- ~ 적-(少)	파라ㅎ- ~ 퍼러ㅎ-(靑)
하야ㅎ- ~ 허여ㅎ-(白)	할- ~ 헐-(破)	반드시 ~ 번드시(宛)

이는 모음의 二肢的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으로 새로운 어사가 파생되는 것이니 일종의 ablaut의 파생이다. 즉 '거풀'에서 ablaut에 의하여 그에 모음이 대립되는 '가풀'이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은 이 파생법이 매우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운영되는 생산성이 강한 조어법이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 정연한 체계에서 벗어나는 파생도 있으니 '쪼고맷'에 대한 '저고맷', '효근'에 대한 '허근'이 그것이다. 이들도 양모음과 음모음의 대립을 보여 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모음 대립의 쌍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연한 대립 체계에 의한 어감 표현을 직접 대립이라 하면 예외적인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을 간접 대립이라 할 수 있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간접 대립을

보여 주는 어사 파생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李崇寧선생은 이 대립에 의하여 나타나는 어감의 대립을 다음과 같은 표로 설명하였다.

輕薄系列(陽母音系列); 輕 明 淺 清 薄 剛 近 親 密 小 少 狹 急 短 — — —

深重系列(陰母音系列); 重 暗 深 濁 厚 柔 遠 疎 粗 大 多 廣 緩 長 — — —

이 어감의 대립을 나타내는 단어는 문맥에서 묘사하는 대상을 달리 취하게 된다. 즉 ‘뱃다’는 옷이나 갓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벗는 경우에 쓰이고 ‘벗다’는 受苦나 죽사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벗는 경우에 쓰인다. 또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문헌을 보면 ‘마리’는 거의 釋迦와 같은 尊者의 머리를 지칭할 때 쓰이며 이것이 ‘머리’의 존재 표현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杜詩諺解에는 ‘마리’와 ‘머리’의 이러한 구별이 없고 ‘마리’는 詩文을 헤아리는 수량사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의미가 변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어감 표현의 대상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감 표현의 대립을 보여 주던 의성 의태어의 쌍이 후대로 오면 전연 별개의 단어로 바뀌어 그 대립의 흔적이 없어지는 예가 있다. 현대 국어의 ‘삭다’와 ‘씩다’는 본래 이 대립에 의하여 파생된 것이지만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졌고 그 어형까지도 바뀌어 상호간의 관계가 끊긴 것이다. ‘깎다’와 ‘쪼다’는 각각 ‘갓 𠵼’과 ‘것 𠵼’에서 발달한 것으로 비록 어형상으로는 대립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분화되어서 상호간의 관계가 끊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중세 국어 이전부터 있었으니 ‘술다(銷)/술다(消)’에 대한 ‘술다(燒)’가 그것이다. ‘술다(燒)’도 본래는 ‘사라지다’의 뜻이었었는데 그 표현의 대상을 불에 의하여 사라지는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에 별개의 단어가 된 것이다.

중세 국어의 이 대립에 의한 파생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현저하게 약화되어 당시에 대립을 보여 주던 어사들이 소실되거나 전연 별개의 단어로 발달하였고 첩어를 중심으로 한 의성 의태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單一音의 語感表現

擬聲擬態語가 음을 이용하여 사물을 흉내낸 것이라면 개개의 음성이 일정한 현상을 흉내내는 데 효과적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일찍이 O. Jespersen은 [i]음이 작은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국어의 단일음이 일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은 S. Martin이 논술한 바 있다. 그는 현대 국어 음절말의 유성 자음들의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l(ㄹ); smooth, flowing or liquid
- ng(ㅇ); round, hollow or open
- k(ㄱ); abrupt, shrill, tight
- s(ㅅ); fine
- n(ㄴ); light
- m(ㅁ); spread

이 표현성은 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단일음이 일정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세 국어의 의성 의태어에서 단일음의 상징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우’ 음; 圓形感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도렵/두렵-, 도련/두련-, 보도롯/보도록, 부리, 구불-, 우묵, 우흙, 소음’ 등은 外形이 둥근 것을 나타내고 ‘구울-, 구물구물, 굵불-/굽술-, 부를-, 움스-, 움죽, 그울-’ 등은 圓形을 조건으로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외/위’ 음; 圓形性을 강하게 표현하거나 回轉運動을 나타낸다. ‘휘얼-’은 원형으로 비틀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회로리브롬, 횃돌/횃들-, 뛰우-(跳), 붓피-(沸), 허위-, 뷔틀-’ 등은 원형을 조건으로 한 운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되 ‘오/우’의 경우보다는 강하여서 회전성을 나타낸다.

‘와/워’ 음; 開口度가 큰 모음으로 호탕한 공간감을 나타낸다. ‘호윽호윽, 흰, 흰츄, 워즈런, 화하다’ 등이 그 예이다.

‘이/의’ 음; 둘 이상의 사물이 교차된 상태나 混交되는 운동, 또는 교차된 불쾌감을 나타낸다. ‘척척, 섧기-, 성기-, 설피-, 어긋-, 비비-, 최-, 흘기-, 뺨의-, 므죄-, 열의-’ 등은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고 ‘미-(憎), 짝-(嫉), 므의엽-, 식툏, 더덕-, 서의-’ 등은 교차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ㅂ, ㅍ, ㅁ’ 음; 이 뽕音들은 面積感을 표현한다. ‘다붓, 다복다복, 보도롯’ 등은 ‘면적감 + 원형감’으로 球面을 나타내고 ‘비비-, 범비-, 뷔든니-, 뷔틀-’ 등은 면적이나 구면을 조건으로 하는 운동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또 ‘보드롭/부드럽-, 반둑/반득-, 반둑원돌/번들원들-, 번계’ 등은 표면이 圓滑, 柔軟함을 나타낸다.

‘ㅅ’ 음; 쇠가루가 흩어지는 듯한 鎖屑感을 바탕에 깔고 있어 ‘고스미-, 스프르히, 스러디-, 수스-, 사놀/서늘, 서의하-, 숲숲’에서와 같이 尖銳, 散漫, 寒冷, 悽涼 등의 느낌을 준다.

‘ㄷ, ㅌ’ 음; ‘두드리-, 다듬-, 더듬-, 드되-, 답답, 돋갑-, 두두룩, 도련, 둔겁-, 툭툭, 뿌우-, 툭툭’ 등에서와 같이 ‘몽뚱그려진 結集體의 體積感’을 나타낸다.

‘ㄴ’ 음; ‘너운너운, 노흔노흔, 어른어른, ㄴ뉘, 위즈런, 나뻐나뻐, 날호-, 사놀 / 서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輕快하면서도 柔軟한 지속감’을 준다.

이러한 단음의 상징성은 개인에 따라 그 파악이 다르고 문맥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어서 언중들이 공감하는 의미 영역을 추출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단음의 상징성을 추출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5. 結 語

중세 국어의 擬聲擬態語는 현대 국어에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子音의 三肢의 對立에 의한 어감 표현, 즉 子音加勢法則은 아직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有氣音의 기능 부담량이 극히 적었고 硬音이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발달하였다는 사실과도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음의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은 매우 생산적이어서 광범위하게 쓰였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쇠퇴하여 첨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성 의태어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의성 의태어는 어감의 표현이 主機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어휘들보다도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현대에까지 계승되지 않는 의성 의태어의 비율이 다른 일반 어사의 경우보다 높다. 이것은 음성 상징도 관습성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의성 의태어도 외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빼꾸기’는 한문의 ‘布穀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한문의 의성 의태적 첨어는 매우 풍부하므로 우리의 의성 의태어가 그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선인들의 漢詩에 漢文의 의성 의태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니 그 영향이 국어에 끼쳤을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시대에는 관습적이었던 단어들이 15, 6세기에 의성 의태어로 발달한 예가 확인된다. 평은 고려 시대에는 ‘찌’였었음이 鄉藥救急方의 鄉藥名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龍飛御天歌에 ‘뿡’으로 나타나 표현력이 있는 擬聲語로 발달하였음을 보여 준다. 도토리도 고려 시대에는 ‘돌이밤’이어서 鄉藥救急方에서는 ‘猪矣栗’로 표기하였었다. 이것이 杜詩諺解에서는 ‘도토밤’, ‘도톨밤’으로 동요하다가 訓蒙字會에서는 ‘도토리’가 되어 의태어로 발달하였다. ‘머구리’는 의성어인데 16세기경에 새로 등장한 ‘개구리’와 경쟁하다가 현재는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의 의성 의태어가 없어지

고 새로운 의성 의태어가 발달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訓民正音은 중국의 聲韻學을 소화하고 응용하여 창제된 것이다. 聲韻學은 性理學과 결부되어 陰陽五行의 이론을 음성학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음을 陰과 陽으로 가르고 깊다거나(深) 얕다(淺)는 용어를 써서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음의 상징성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또 喉音은 虛而通, 牙音은 似喉而實(후음과 같되 실하다), 舌音은 轉而颺, 齒音은 屑而滯, 唇音은 含而廣이라고 한 것도 같은 근거로 말한 것이다. 이는 당시인들의 언어관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 상징성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고구해야 할 이 분야의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 南豊鉉(1965), 15世紀國語의 音聲象徵 研究, 國語研究 13, 國語研究會.
- _____ (1969), 母音의 音聲象徵과 語辭發達에 대한 考察, 漢陽大創立30周年紀念論文集.
- 李崇寧(1958), 音聲象徵再論, 文理大學報 7-1, 서울大文理科大學學藝部.
- _____ (1960), 國語에 있어서 母音의 音聲象徵과 音韻論的 對立과의 關係에 對하여,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 鄭寅承(1938), 語感表現上 朝鮮語의 特徵인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 한글 6-9, 朝鮮語學會.
- 趙奎高(1958), 疊用副詞의 考察, 語文學 3, 語文學會.
- Samuel E. Martin(1962),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UAS Vol. 13.